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 상조는 예다함

예다함은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다.
최근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 상조는 예다함'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브랜드 신뢰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다함은 업계 최다인 제금융권 6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 체결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으로
2중의 상조 납입금 안전 책임시스템은 물론 업계 평균 대비 재무 건전성 또한 최상위인 대한민국 대표 상조 브랜드다.



스스로의 기준을 높입니다



상조의 기준을 제시하다, 스스로의 기준을 높여가는 '예다함'
예다함은 순수 장례 서비스에 집중, 스스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고객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 진행 후 미사용 품목에 대해 환불해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 노잣돈 및 수고비 또는 금품 수수 시 고객이 기납입한 금액을 100% 환불하고 해당 장례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당행위 보호시스템' 등을 시스템화했다. 또한 예다함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 관련 학과 졸업생과 국가 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채용 후에도 다시 내부의 일정 기간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다함 교육지원센터의 정기적인 보수 교육과 추가 실무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성된 예다함 장례지도사는 전국 9개 지부 직영망에 배치되어 모든 의전에 표준화된 품격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예다함의 소비자 중심, 윤리적 정도경영은 업계 내 부도덕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조업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예다함은 상조의 기준이라는 아이콘

으로 부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4회째 지속 획득했다.

서로 돕는 상조(相助)의 본보기, '사랑(愛)다함'

예다함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프로젝트인 '사랑(愛)다함'을 출범, 예다함 전자청약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의 10%와 매월 임직원 급여의 1천 원 미만 금액 및 자체 기부 예산을 적립하여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다. '사랑(愛)다함' 기부금은 입양 기관의 어린 생명들과 잠재 빈곤층(노인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등)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보탬을 주고자 국내 입양 전문 기관인 '성가정입양원'과 무료 진료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조손(祖孫)가정에 무상 장례 지원,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한 순직소방관들의 유가족들에 위로금 전달 등 예다함은 사람과 사람이 돕는 상조(相助)의 본보기로 거듭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NTERVIEW



오 승 찬 The-K예다함상조(株) 대표이사

The-K예다함상조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장례서비스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프리미엄브랜드지수를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고객 감동을 위해 힘쓴 모든 직원들의 정직한 노력을 소비자 분들이 신뢰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예다함은 전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입니다. 예다함의 투명하고 정직한 기준이 상조업계의 기준이 되도록 업계를 혁신하는 리딩 브랜드로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다함은 고객의 마지막 여정에 최상의 의전으로 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